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4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6호



▲ '이음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지난달 1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기념 퍼포먼스 모습.

JDC '이음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기관 주관, 지난달 16일 발대식

“전업주부로 지내다 일을 하게 됐어요. 아름답고 신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봄을 만끽하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회장 고미연),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소장 강수영)가 공동 주관하는 '이음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지난달 1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름매니저(158명), 버스킹 공연단(10명),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32명), 푸드메신저(38명), 일자리지원단(12명) 등 사업

참여자들과 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여했다.

발대식은 영상 상영, 경과보고, 축시낭송, 격려말씀, 인사말씀, 축하공연, 참가자 다짐 선언문 낭독 및 전달,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 6개월간 각자 지정된 장소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오름매니저는 제주도내 오름 19개를 순회 방문해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며, JDC는 앞으로 제주 전역 368개 오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이사장은 “이음 일자리 사업은 제주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이면서 신 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치환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사회 공헌 사업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JDC 관계자 분들과 이번 사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미연 회장은 “헌신, 봉사과 같은 생명의 바람은 제주를 살리는 원동력”이라며 “한 분 한 분 자긍심을 갖고 참여해 제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수영 소장은 “시간제로 의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러던 중 이 일자리를 만들게 됐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관련 인터뷰 7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된다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정책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22년까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등급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6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국이 가정을 방문해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7면에서 계속

지면소개

■ 종합 3면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해야"

■ 특집 7면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터뷰

■ 사회복지소식 4면
장애인 확대신고·현장조사 본격 개시

■ 기획 8면
시설탐방(95) - 사회복지법인 '유진'

JDCar 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는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서비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다문화가족 지원 이동상담소 운영

도의회,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는 지난달 7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사진>

이번 상담소는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들을 비롯한 센터를 방문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세무·건축·부동산·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1 상담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입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조례 정비사항인 경우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화 추진을 통해 제도상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 등에 의한 진정·고충민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진행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총 10회·143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읍면동 위주의 방문에 따른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결하기 위해, 올해에는 계층별, 업종별 등 도민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모금전문가 양성교육 열린다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금전문가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한국모금가협회(이사장 허탁)와 함께 오는 5월 비영리단체 모금전문가 양성교육·비영리 내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국내 최고의 비영리·모금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재준(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 전현경(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김철환(적정마켓연구소 대표), 황신애(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이민구(고려대학교 수석펀드레이저), 이현승(세이브더칠드런 팀장) 등 9인이 맡는다.

대상은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다양한 비영리단체 종사자이며 강의는 경영·조직문화 과정(5. 10~11)과 모금·홍보 과정(5. 17~18)으로 구분해 각 2일간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진행된다.

경영·조직문화 과정은 ▲믿을 수 있는 모금기관, 투명성을 확보하라 ▲모금의 전략을 디자인하라 ▲법을 알고 모금하라 ▲고객 모금을 위한 실천 전략 ▲모금탐발당의 노하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금·홍보과정은 ▲모금의 홍보에 날개를 달아라 ▲비영리·사회공헌 홍보 및 보도자료 전략 ▲비영리기관의 뉴스레터 ▲기부자 커뮤니케이션 ▲비영리기관 담당자를 위한 멘토링 등으로 진행 된다.

참가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온오프믹스 홈페이지(<https://onoffmix.com/event/129685>)를 통해 받고 있다.

문의는 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담당 황이삭)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제주도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일부터 10일까지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기초생활 청년수급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만 15~34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될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중 기준 소득(334,420원)을 초과한 소득의 63%)을 지원하며 3년 최대 지원 금액은 21,060,000원이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근로

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 수 급을 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어르신 위한 '행복택시' 본격 운영

제주도는 지난달 7일 도청에서 제주은행,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비씨카드와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자동 처리된다. 7000원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연간 2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이동대 제주은행장,

강성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이사장,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문환 비씨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3월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205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2,409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168봉 ▲강봉철남=생필품135개▲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198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10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6,253개 ▲모양=제과39개 ▲미인빵=빵137봉 ▲빠라빠빵=빵98봉 ▲손뜻모아봉사회=말고기17kg ▲신화유통=식료품87개 ▲신송식품=식료품310개 ▲영화식품=식료품44개 ▲아라파파=떡142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30,000	1,44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37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1,025,000	532,010
푸드마켓후원	3,225,000	17,681,44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해야”

도지체장애인협, 26일 상담소 15주년 토론회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강인철)가 주최하고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가 주관하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15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행됐다.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당사자의 힘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백신옥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와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시간으로 마련됐다.

백신옥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상황을 고

려할 때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은 필요해보인다”며 “그러나 기존 관련법률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충동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이 개별법으로 흩어지고 쪼개져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

책이 합당하게 진행되고, 특성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이뤄지려면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UN 장애인권 권리협약과 장애 여성·소수자의 폭력방지’ ‘여성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지역사회 통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3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부문에서 3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

이번 평가는 3년을 주기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단이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다.

평가는 전국 203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

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6개 분야 전 영역에 모두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8년 평가에서 시각장애 전문복지관으로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2011년, 2014년에 걸쳐 2017년까지 3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제주항공 이수봉·하찬주 조종사, 후원금 기탁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 이수봉 기장과 하찬주 부기장은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제주공항 카운터 앞에서 제주지역 저소득 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사진>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동서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남북활주로에서 이동중인 항공기를 발견해 항공기를 급제동하는 결정을 내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무사히 넘긴 점을 인정받아 지난 1월3일 진행된 애경그룹 신년회에서 장영신 그룹회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애경인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상과 함께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장과 하 부기장은 모든 임직원이 상황 수습에 노력한 만큼 포상금 전액을 직원들에게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포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위의 만류로 이 뜻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끝내 환원의 뜻을 밝히면서 각각 포상금의 절반을 제주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 받은 후원금으로 도내 소년소녀가장(조손가정) 2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강태범)는 지난달 5일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도협의회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제안,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연계 및 지원, 기타 복지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국제로타리

3662지구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치환 회장은 “협의회는 식품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대표 이웃사랑 물품 기부



이기영 화신천막사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찾아 10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라면 50박스)을 기부했다.

이 대표는 “제주광역푸드

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 개관 이후 첫 기부를 하게돼 매우 뜻깊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연합회 제2차 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홍철)는 지난달 15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연합회 회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연합회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팀워크강화사업 ‘건강한 제주만들기 환경정화 걷기대회’ 사업추진’ 등을 논의했다.

김홍철 회장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신고·현장조사 본격 개시

지난달 14일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오상)이 지난달 14일 기관 교육실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개관식은 권오상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고현수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와 은종균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기관장의 격려사, 경과

보고, 현판식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사후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신설된 기관이다.

2017년 11월부터 운영이 시작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사후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오상 기관장은 개소식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틀을 꺾으로써, 장애가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더 이상 학대라는 언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는 고어가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장애인권익옹호라는 기관이 유물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끝까지 연대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버프’ 운영

제주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소장 김은영)는 지난달 6일부터 12월까지 ‘버프’ 거리아웃리치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거리 아웃리치 활동은 제주동부청소년경찰학교 앞과 제주시청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요사업으로는 거리배회,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 및 간식 제공, 위생 등 생활지원과 보호 서비스, 심리적 안정 및 기능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상담정서 지원서비스, 거리위험대처교육과 체험형태의 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학업지

원서비스, 각종 예방교육 및 위기개입서비스 등이 있다.

특화사업으로 지역내 중·고등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가출 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 사회적응과 회복을 도모하는 자립교육이 있다.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

동형)는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홍보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버프’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4시까지, 둘째주, 셋째주는 금요일, 토요일은 새벽 5까지 운영한다.

문의=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723-0179).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치매센터가 주최하고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제주도 6개 치매안심센터가 공동주관하는 ‘2018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가 오는 14일 제주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치매극복 전국걷기 행사는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

임을 알리고 단순히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예방해야하며,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치매예방체조, 치매극복 걷기(사라봉 둘레길

및 사라봉 일부 구간 4km),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치매예방부스, 건강관련 체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강증진 부스,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등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부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사진으로 사랑을 전달해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공모전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직무대행 양창근)는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 달간 ‘사랑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진 접수는 우편(제주시연삼로 22 3층)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foster.or.kr) 또는 이메일(jejufoster@gmail.com)로 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이다. 발표는 5월 4일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하며 시상식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에

개최한다.

응모작과 수상작은 시상식과 홍보책자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77-1406 또는 747-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식 개선 주제 작품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29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식개선 글짓기·사생대회’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식 개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진행된다.

글짓기는 A4용지 3장 이내로 20일부터 30일까지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그림은 유화물감을 제외한 크레파스, 파스텔,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야 하며, 각 학교 해당지역 복지관에

방문 및 우편 제출 하면 된다. 서귀포시지역은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제출 받는다.

참가자격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우수작은 제주도교육감상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장상, 사회복지법인 준강 이사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www.jejurehab.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 문의(702-0295) 하면 된다.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 추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월부터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마다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사업을 진행한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13가족 16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청소년 및 형제자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인 ‘몸짱! 마음짱!’과 좌충우돌 신나는 형제·자매 나들이, 함께 하면 시너지 가족나들이

‘나를 위한 여행’ 부모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연말에는 1년 동안 진행한 결과물 전시(미술활동) 및 발표(검도)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초/식/마/당

(무순)

아동 심신발달 사업운영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진옥)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아동의 심신발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뇌와 손을 사용하면서 정서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한지공예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수영강습으로 실시됐다.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제주애덕의집(원장 허윤정(로사수녀))은 지난달 5일 교육실에서 거주인 23명과 생활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상대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세상을 향한 작은 디딤돌' 입학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평생교육사업은 문화예술활동반, 체험학습 입주 훈련반, 직업재활 훈련반으로 구성됐다.

업무협약 체결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선희)는 지난달 13일 우수 장학생 지원 및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지도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장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학사업 및 저소득층 자원연계 활동에 노력하기로 했다.

즐기는 국궁활동 진행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무병장수 테마파크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집중력 향상 및 과잉행동 개선을 위한 즐기는 국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궁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진행방법을 통해 감각기능 및 표현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이동상담 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4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 '제1회 찾아가는 상담의 날' 맞이 어르신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노인 학대 인식개선 관련 사진 전시와 노인학대 예방과 사례발굴을 등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1577-1389) 안내를 통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의 중요성을 알렸다.

후원품 전달·봉사활동



(사)청년제주 봉사단(이사장 강철호)은 지난달 18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을 방문해 후원물품(샴푸 외 3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거주 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체육관 청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 할 계획임을 약속했다.

장애이동 지원 차량 후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약천사 자광원(원장 정수스님)은 지난달 19일 하나금융나눔재단으로부터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을 후원 받았다.

이날 전달 받은 차량(스타렉스 1대)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자광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름 등반·섬 탐방 프로그램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달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오름 등반, 섬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체중조절을 통한 건강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름 등반 프로그램은 매월 3~4회 실시되며 섬 탐방은 연3회 진행될 계획이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업무협약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달 8일 센터에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부장 이창휴)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제주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적극 애용·홍보하는 등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육 실시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항)는 지난달 14일 센터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교육은 센터 건물안전관리자의 지도로 상황별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과 소화기사용방법 등의 이론교육과 가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만들어 대피훈련 및 소화기 사용을 통해 화재 진압방법 등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달 4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는 2017년 사업 결과보고와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신장장애인 및 자녀 장학금 수여식 등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후원 받은 지정기탁금으로 지원됐다.

사이판 해외 여행 실습



제주보육원(원장 강지영)은 지난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들과 보육원 6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사이판 해외여행실습을 다녀왔다.

제주항공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실습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사이판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교육투어'와 현지 제주항공 트래블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현지인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등으로 구성됐다.

시론

연꽃과 흙탕물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특징이 뚜렷하다. 흙탕물에서 잘 자란다. 그럼에도 꽃의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열매까지 남긴다. 줄기·잎은 식용으로 제공한다. 흙탕물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뿌리까지 이용되는 식물이 바로 연꽃이다.

연꽃은 펴이 있는 연못이나 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잘 자란다. 우리 주변에서 흔

아낌없이 베푸는 식물

히 볼 수 있다. 뿌리줄기(연근)는 진흙 속을 가로질러나가면서 번식한다. 마디가 있고 희다. 가을이 되면 가늘었던 것이 비대해진다. 잎이 되는 줄기와 꽃이 되는 줄기는 각각 뿌리줄기에서 돌아나 물 위로 솟아오른다. 잎은 넓은 원주형으로 물에 잘 젖지 않는다. 꽃은 여름에 피고 열매는 가을에 맺는다.

연꽃은 뿌리에서부터 꽃에 이르기까지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연근은 빈 구멍이 있지만 조직이 단단한 반면 쉽게 부

서진다. 그래서 씹히는 맛이 산뜻해 각종 요리의 재료로 쓰인다. 꽃이나 잎은 차로 활용된다. 연한 잎을 말려 죽을 씹 먹거나 연잎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이처럼 연꽃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식물이다.

그래서 연꽃에는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 우선 순수함이 있다. 아무리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꽃과 잎은 주변의 진흙에 물들이지 않고 고고함을 드러낸다. 둘째는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살다가 떠난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남긴다. 셋째는 좋은 향기를 낸다. 자신이 사는 환경은 아무리 썩은 냄새로 진통해도 스스로 향기를 내 그 냄새를 없앤다. 넷째는 줄기가 부드럽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가늘고 길게 자란 줄기는 유연해 잘 꺾이지 않는다. 다섯째는 연잎의 모양은 넓고 둥글다. 물론 뾰족하게 생긴 잎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잎은 넓적하고 모나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갖게 한다. 여섯째는 연꽃의 색은 곱고 예쁘다. 여름에 활짝 핀 연꽃의 색은 지나치게 아름다울 정도

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일곱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연꽃은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모두 아래로 굴러 떨어뜨

진흙물에서도 우아함 간직

려 젖지 않는다. 이처럼 진흙물에 아무리 오래 담가있어도 그 자태는 어찌나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는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진흙탕 같은 탁한 현실에 뿌리를 내렸더라도 연꽃처럼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진흙탕에 들어가면 더 시커먼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나오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 영 조

산림치유지도사

기고

‘맞춤형 복지’를 시작하며...



김 지 현

일도2동주민센터

최근 2018년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성황리에 치러졌고 막을 내렸다. 수많은 경기들이 흥미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선수가 속해있는 남자 팀 추월 스케이팅은 특히나 인상 깊은 경기였다. 팀추월 경기는 세명씩 이루어진 두 팀이 총 6바퀴를 도는 경기방식인데 마지막 세 번째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즉 마지막 주자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경기를 운영하는 협동심이 중요하다. ‘맞춤형 복지’

팀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면에서 비슷하다고 느꼈다.

제작년부터 제주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복지팀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했다.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팀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했을 때와는 다르게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계층을 발굴한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방문상담을 통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담당자들은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문제점, 욕구 등을 파악한 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통합 사례를 관리한다. 우리 일도2동의 경우 담당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한다. 사례관리로

선정된 대상자의 주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해결난이도에 따라 업무를 시, 또는 민간에 이관해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처음 ‘맞춤형 복지’에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관,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돌아다닐 때는 기존에 했던 복지일과는 달라 생소하게 느껴졌고 한 집 한 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이 앞섰다. 하지만 여러 집을 거쳐갈 때 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뿌듯함으로 변해갔다. 본인이 속해있는 ‘맞춤형 복지’ 팀내 뿐만 아니라 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소외계층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어떤 일을 해내는 협동심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맞춤형 복지’일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성장해보고자 한다.

칼럼

말이 곧 마음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쏟아 내는 현하지변(懸河之辯)은 분명 재능이다.

한데 말엔 말하는 이의 의지만 아니라 마음이 들어 있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그 사람의 능력이면서 인격이다.

반말이란 게 있다. 얼마 전, 온라인을 달궜던 이슈로 20대 두 여자 연예인의 욕설 반말 논란이 있었다. 처음엔 나이 많은 선배가 오락 프로그램 촬영 중 연하의 후배에게 뜬금없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참 욕을 먹더니, 뒤늦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아니, 아니”라는 후배의 반말이 빚어낸 풍경이다. 반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들리면 오해로 번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상대가 조금만 관용의 마음을 열어준다면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투이기도 하다.

우리말은 존비(尊卑) 관계가 미묘하게 발달된 언어구조다. 주체·객체존대가 구분되다 현대어에서 아주 간략해졌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시대의 등에 업혀 평어가 반말로 가는 걸까. 생략된 어투가 까딱 진정의 왜곡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실은, 말하는 이 마음을 헤아리고 나면 별 것도 아닌 것이라 웃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생략된 어투 진정 왜곡으로 비칠 우려도

망언은 안된다. 잇따른 유명 연예인들의 망언이 불씨를 키운다.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한 개그맨이 ‘여자는 멍청해서 남자한테 안된다.’라 했다 논란이 불거져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여성 비하 발언이다. 스타라고 망언을 해선 안된다. 망언은 망발이다.

온라인에서 남성들의 여성 혐오가 극에 달해, 과거 허영심 많은 여자를 뜻하는 유행어 ‘된장녀’에 대해 이젠 ‘김치녀’란 말이 등장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남성들에게 조건을 따지고 받기만 바라는 무개념 여성을 내려뜨린 말이다. “선생님도 김치녀예요?”라고 물어 놀란 적이 있다는 한 초등학교사의 하소연, 한쪽 귀로 흘려들 일인가. 말이 오염되면 사회가 퇴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거짓말처럼 실없는 게 없다. 거짓말은 허언이다. 양심을 속여 나오는 게 거짓말이다. 세간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거짓말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이다. 뻔한 거짓말의 허망함이 우리를 망연 자실하게 한다. 금세 들통 날 것을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보자는 심보로 어찌 지도자의 위치를 넘보는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작태다.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거짓말을 보면서, 말은 곧 마음이라는 생각을 백 번도 더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김길용

편집위원·칼럼리스트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터뷰

☞ 1면에서 계속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으로 희망을 찾다

JDC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음 일자리 사업' 이 지난달 1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음 일자리 업무는 19일 부터 시작했다. 도서관 사서, 버스킹 공연단, 푸드메신저, 일자리 지원단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4명을 만나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신입사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채 석 복 / 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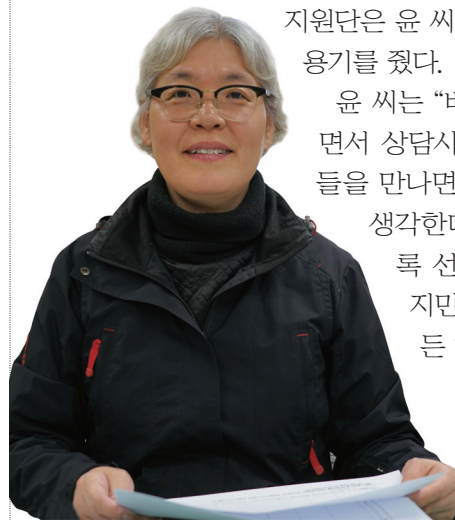
“퇴직 후 직업을 갖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관리를 잘 한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도서관 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채석복씨를 만났다.

일을 시작하고 난 후 신입사원이 된 것 같다는 채 씨는 “도서관 사서로 온 만큼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해서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퇴직을 생각하면서 노후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정년퇴직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년이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인생 이모작 의미 느끼고 있어요”



윤 승 임 / 일자리 지원단

상담사로서의 도전을 해오던 윤승임씨에게 일자리 지원단은 윤 씨가 꿈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

윤 씨는 “배우는 자세로 지원했다. 일을 병행하면서 상담사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무도 배워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지만 알려주면 조금은 늦지만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음 일자리 사업’은 지금 절반은 성공한 사업이다”라며 “인생이모작이라는 말을 이 사업을 통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일도 봉사도 실천하면 일석이조예요”



박 경 찬 / 푸드메신저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푸드메신저로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박경찬씨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보람있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드뱅크나 마켓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 직접 체험을 해 보니 실무자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푸드메신저 사람들과도 한사람이라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힘내라고 다독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음 일자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악을 통해 추억을 선물 받아요”



최 구 희 / 버스킹 공연단

들국화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최구희씨도 버스킹 공연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씨는 “들국화 활동을 그만하고 제주도 내려온 지 10년 정도가 됐다. 그동안 직장생활도 하고 레슨을 하긴 했지만 음악활동을 거의 멈추고 있었다”며 “버스킹 공연단을 통해 예전 공연할 때 추억이 생각나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젊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 이 공연을 하지만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라도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며 “공연을 통해 심과 힐링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휴식을 선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1면에서 계속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단계별 인상

복지·건강위해 각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추진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키로 했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 및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키로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을 늘리는 한

편, 장애인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 25만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

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익·안전 분야에서는 각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재난 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시설탐방

(95)사회복지법인 '유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편안한 '맞춤형 안식처'

장애인 자립·행복 추구...20년째 헌신

“저 역시 장애인 부모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진(이하 유진·원장 최은미)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 추구'를 위해 지난 1998년 5월 문을 열었다.

유진의 미션은 '제주지역과 함께하는 유진', 비전은 '지역사회 연계로 사회통합 서비스 촉진'이다.

미션과 비전은 '지역'으로 연결된다. 도내 장애인들이 제주에서 행복한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유진은 '주간활동센터'와 '단기거주시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로 구성됐다. 각각 20명·11명·1명 등 32명의 장애인들이 14명의 선생님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주간활동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진은 주간활동센터를 통해 개인의 희망과 요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별서비스지원'을 계획해 장애인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체육활동, 정보화교육, 문화예술 교육사업, 요리활동 등 '교육재활사업'과 수영 활동, 올레·오름트레킹, 볼링동아리, 다도예절 등 사회심리재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은 텐트하우스체험이다.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고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눠 먹다 보면 자연스레 자립심이 높아진다.

최은미 원장은 “서비스 이용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직접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동적인 참여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영위하면서 만족도와 열정이 크게 제고됐다”라며 “표정, 몸짓만

봐도 확연히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 등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한다.

식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며, 사회적응활동, 취미활동, 종교 활동 등 정서 안정을 위한 '여가생활지원'도 이뤄진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는 인권침해에 노출된 장애인들을 분리해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는 곳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진의 또 다른 강점을 바로 부모와의 소통이다.

한 해 동안 총 여섯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시로 부모들에게 전화해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등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최 원장은 “부모와의 잦은 소통

은 자연히 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보호 장애인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 엄마 같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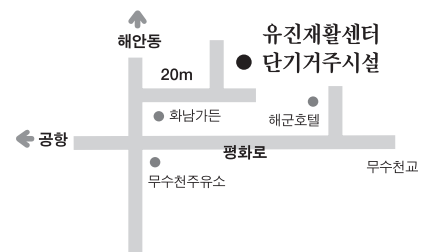
유진의 향후 계획은 역시 장애인들의 보다 성공적인 자립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마트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버스타기 등 자립에 필요한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더욱 많이 시도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용인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지원계획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며 “무엇보다 장애아동 부모들과 고민을 나누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편안한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다”고 얘기했다. <김승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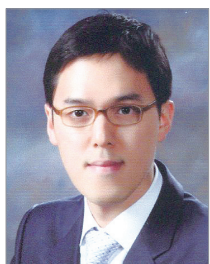


▲ 사회복지법인 유진은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부모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51

근로기준법 개정!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부분을 입법으로 정리하면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대한민국 국회가 2018. 2. 28.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50%로 확정하며,

가장 큰 특징은 현행 주5일제(소정근로시간 40시간 체제) 아래에서 1주일인 7일 간 최대 몇 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다. 현재는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을 분리하여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한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40시간에 12시간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이 조항의 시행은 빠르면 올 7월 1일부터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및 2021년 7월부터로 순차 적용된다.

◆ 휴일근로수당 및 공휴일 규정

연장근로를 휴일에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의 규

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가산 비율이 통상임금의 150%인지 200%인지를 놓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연장근로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0%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로 사기업이나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게 되며 이 규정 역시 사

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차차 시행되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체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일자리가 확대되고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되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향상되는 꿈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